

# 더민주 “강력한 야당 필요” 국민의당 “녹색바람 복상”

## 마지막 주말·휴일 표심잡기 총력

합동 유세·필승 결의대회 세몰이 새누리 “車 100만대 도시 성사” 여야 지도부 수도권 표몰이 집중

4·13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휴일인 10일 광주·전남지역 후보들은 도심 곳곳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막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후보들은 유세 차량이나 도보로 인파가 몰린 번화가, 재래시장, 공원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문재인 전 대표의 1박2일 호남 방문을 계기로, 초반 선거구를 중심으로 한 거점별 후보 합동 유세를 통해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서구 품암동 생활체육공원과 남구 백운동 로터리 등에서 합동 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이웅섭(광산울)·양향자(서구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차 광주 유치와 관련,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국민의당 측에 TV토론을 공식 제안하는 등 선전경쟁도 펼쳤다.

박해자 광주시장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폭주를 막고,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새누리당에 맞서 싸울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며 더민주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당은 ‘녹색돌풍’의 진원지인 광주에서 승세 운이 좋게 들어간다는 전략으로, 이날 ‘광주시민 필승대회’를 열고 선거 중반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다.

김동철(광산갑)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후보들은 10일 광주 첨단 쌍암공원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광주 전체의석 석권을 향한 대세몰이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역사적으로 광주의 선택이 대한민국 변화를 선도해 왔다”면서 “변혁의 시기마다 놀라운 정치역사를 창조해온 광주 시민이 이번에는 녹색바람을 만들어 냈고, 이제 이 바람은 전남과 전북을 거쳐 수도권으로 북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들은 “새로운 정치판을 만드는 국민의



5·18묘지 묵념 8일 광주시 우정동 국립 518 묘지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무릎 꿇고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세대별, 영역별로 시민들이 후보들에게 ‘국민의 편 국민의당’이라고 써서 나눠 주며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근현 중앙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이 광주와 나주를 방문해 후보들을 지원했다. 광주시장 사무실에서는 광주지역 후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본부장은 광주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의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새누리당의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민주연합당 후보들도 유권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4·13 총선을 앞둔 마지막 휴일인 이날 수도권 표몰이에 전념했다. 수도권은 제20대 총선 최대 승부처로, 특히 이번 선거에는 경합

지역이 많아 여야 모두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는 지역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박2일 간 수백 킬로미터를 돌고 도는 ‘경부선 하행 유세’를 벌였다. 서울에서 시작해 인천에서 마무리하는 ‘수도권 집중공략’ 유세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북한산 등산객 인사를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에서 18명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도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병에서 시작해 박빙 승부지역인 정호준(중·성동울), 김성식(관악갑), 이행자(관악을), 정전택(구로울) 후보 등에 대한 지원 유세를 벌였다.

주요 광주에 머물렀던 천정배 대표도 이날 오후에 상경해 정호준(중·성동울), 서경선(중·성동갑), 박태순(종로) 후보를 지원했다. 김한길 의원은 부인 최명길씨와 함께 전북 일대를 순회하며 국민의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3번 찍으면 OK” 국민의당 광주지역 후보들이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쌍암공원 앞에서 열린 광주시민 필승대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 국민의당 호남 지지도 50% 돌파 비례대표 지지율도 가파른 상승

### 리얼미터 4월 첫째주 여론조사

### 서울 비례 지지도 더민주 추월

### 갤럽 조사도 2주 연속 상승세

4·13 총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도가 50%를 돌파하고 비례대표 지지율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는 등 국민의당 지지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4~6일 전국 1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4월 첫째주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34.4%로 지난주(3월28~4월1일까지 조사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2.7%포인트 하락, 지난해 4월 넷째주(33.6%)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민주는 1.1%포인트 오른 27.3%, 국민의당은 2.0%포인트 오른 16.8%였다. 정의당은 0.2%포인트 낮아진 8.3%였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더민주가 11.4%포인트 하락한 21.2%, 국민의당은 10.3%포인트 상승한 50.8%를 기록했다. 이 조사(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 참조)는 휴대전화 60%, 유선전화 40% 방식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당 지지

율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창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갤럽이 지난 4~6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은 14%로, 2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는 전주에 비해 2%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2월초 창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새누리당은 2%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하며 지난 2주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났으나 더민주(21%)와 정의당(5%)은 전주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21%로 전주보다 4%포인트 낮아졌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37%의 지지율로 더민주(24%)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비례대표 정당을 묻는 데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36%로 가장 높았고, 더민주(18%)와 국민의당(17%)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며 정의당이 9%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23%에 달해 더민주(15%)를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주 전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각각 22%와 15%를 기록했었다.

이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누리 157~175석, 더민주 83~100석, 국민의당 28~32석

### 여론조사 전문가들 예상 의석수

### 정의당 6~8석 무소속 11석 전망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10일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57~175석, 더불어민주당은 83~100석, 국민의당은 28~32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새누리당 예상 의석으로 여론조사기관 A사는 163석(지역구 142석, 비례대표 21석), B사는 165석(지역구 147석, 비례대표 18석)을 각각 제시했고 C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58~170석, D사는 157~175석을 예상해 각 여론조사기관의 예상

의석수 평균은 160석대 중반으로 수렴했다.

더민주 예상 의석은 A사 88석(지역구 76석, 비례대표 12석), B사 90석(지역구 78석, 비례대표 12석), C사 90~100석, D사 83~95석이다.

국민의당 획득 의석수는 A사가 32석(지역구 22석, 비례대표 10석), B사가 29석(지역구 18석, 비례대표 11석), C사가 28~32석, D사가 25~31석을 예상했다.

정의당 의석은 A사가 6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 B사가 8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6석), C사가 6~8석, D사가 3~7석으로 전망했다. 무소속은 A사 11석, B사 8석, C사 7~10석, D사 5~9석이다. 이 조사 기관들은 당 자체 판세분석 결과 “과반

이 어렵다”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얻게 될 배경으로는 국민의당 등장에 따른 ‘3자 구도’ 형성과 과거 선거에서 보여준 지지층의 막판 결집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100석 이하를 얻어 사실상의 ‘패배’가 예상된 더민주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들은 국민의당에 호남을 빼앗기고, 수도권에서도 국민의당 후보에 표가 분산돼 새누리당에 밀릴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당은 30석 안팎을 얻어 원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역구(서울 노원병)와 호남권을 제외하면 지역구 당선자는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게 조사 기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 이달의 추천 여행 도시! 체코 - 프라하

① 커플당 20만 마일리지 제공

전통 맥주 스파 무료 포함  
**클래식 프라하/체스키크롬로프 7일**

**EEW301\_OKM 2,180,2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없음/선택경비 있음

- ☑ 호텔 : 부피르 호텔 (시내 4성급)
- ☑ 요일 : 매주 일/월
- ☑ 항공 : 체코 항공(OK항공)
- ☑ 특전 : 미팅/샌딩 서비스  
카를로비바리 기념 커플잔
- ☑ 특식 : 로브코비츠 궁 코스 요리

② SM면세점 카드 3만원 권(커플당 1장)

전통 맥주 스파 + 고성호텔 숙박  
**클래식 프라하/비엔나 8일**

**EEW302\_AYM 2,521,2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없음/선택경비 있음

- ☑ 호텔 : 부피르 호텔 (시내 4성급)
- ☑ 요일 : 매주 일/월
- ☑ 항공 : 핀에어(AV항공)
- ☑ 특전 : 미팅/샌딩 서비스  
비엔나 음악회/ 쉐부론 궁전 관람
- ☑ 특식 : 로브코비츠 궁 코스 요리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TALK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친구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친구 맺기
- 우측 상단의 친구찾기 버튼
- ID검색에서 아이디 입력 또는 QR코드 스캔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유료, 관광진흥기금기부,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상품료 등 반드시 고려! 부당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여행상품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여하에 따라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통보를 받으십시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HNT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휴일 2일/고등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발권번호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원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여행 유의 ●여행 자재 ●철수 권고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